

사노피, 국내 제약 인재 육성 위한 체험형 약대생 인턴십 성료

- * 사노피, 15 주간 약대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
- * 총 6 개 대학교(중앙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동국대학교 및 대학원, 부산대학교, 덕성여자대학교)와 협력, 총 19 명 수료
- * 사노피 임직원들과의 멘토링 및 커리어 특강을 기반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해소, 실무 경험을 통한 산업이해도 증진

대한민국 서울, 2023년 10월 16일 -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¹ (이하 사노피)은 약학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15주간의 '인턴십 프로그램'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사노피의 약대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 7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15주간 진행되었으며, 미래의 의약품 연구자를 양성하고 글로벌 제약 산업에 대한 전문 멘토링 및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. 올해는 중앙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동국대학교 및 대학원, 부산대학교, 덕성여자대학교로서 총 6개 대학교에서 총 19명이 참여했다. 지난해 진행한 4개 대학(이화여자대학교, 중앙대학교, 동국대학교 및 대학원)에 더해, 부산대학교, 덕성여자대학교와의 MOU를 통해 6개 대학교로 협력을 확대했다.

참여자들은 인턴십 기간 동안 오리엔테이션과 커리어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사노피 기업과 마케팅, 영업, 임상, 제품인허가, 품질 등 사노피 내 다양한 직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. 또한 약대 졸업 후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사노피 직원과의 멘토링 및 커리어 특강을 진행하며,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.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제약사 근무 경험이 없는 약대생들이 제약사의 실무를 경험해보며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, 인턴십 참가 학생과 사노피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.

배경은 사장

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, 사노피 한국법인 컨트리 리드(Country Lead)

"국내 제약 산업의 미래는 새로운 세대의 인재들에게 달려 있다"며, "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의약계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글로벌 제약산업에 대해 소개하고, 학생들의

¹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(대표 배경은), 사노피 파스퇴르(대표 파스칼 로빈), 오펔라헬스케어코리아(대표 파비앙 슈미트)가 공동으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.

열정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전했다. 또한, “사노피는 앞으로도 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제약 산업 발전에 도움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사노피는 국내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의약품 연구자 양성 및 글로벌 제약산업에 대한 전문 멘토링,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부터 인턴십프로그램을 시작했다. 2022년에는 4개 대학에서 총 15명이 참여했으며,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대상 대학교를 6개교로 확대했다.

사진과 설명

사진	설명
	<p>사노피 `약대생 인턴십 프로그램` 수료식 현장 사진</p>

사노피(Sanofi)에 대하여

사노피는 ‘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’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.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(practice of medicine)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,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.